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③

연구보고 08-15

---

**한국 온라인 문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방안**

2009.2.



# 한국 온라인 문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방안

2009. 2.

연구수행기관 : 정보문화포럼 토론회

연구진 : 이 각 범 (정보문화포럼 의장)

김 해 영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장)

백 재 현 (조인스닷컴 이사)

최 두 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구센터장)

김 성 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 익 현 (아이뉴스24 대기자)

이 준 웅 (서울대학교 교수)

한 영 (한국블로그산업협회)

조슈아박 (한국토론협회장)

김 은 정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연구팀장)

황 지 연 (한국미래연구원 책임연구원)

정 영 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전임연구원)

연구관리자 : 최 두 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장)

고 정 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미래사회전략팀장)

전 흥 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선임연구원)



## <요약문>

### 1. 온라인 토론문화의 문제점

#### ○ 합리적 의사소통과 토론을 방해하는 온라인 문화의 특성

- 원하는 지식·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습득하는 자발적 편식, 부당한 강자와 정당한 약자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집단 분극화와 감정적 집단정체성은 대중의 감성적 폭발을 유도하고 여론을 호도함
- 합리적 정보유통자가 아닌 온라인 활동가는 오프라인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에 도전하며, 편향적인 여론 형성을 유도함
- 선정적·극단적 내용을 심화·확산시키는 온라인의 구조 때문에 명예훼손과 같은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의 왜곡과 재구성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방법의 부재는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음
- 네티즌 스스로 평판체계를 만들고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토론교육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 포털사이트의 토론장

- 인신공격, 개인정보 노출, 비방, 욕설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이버 폭력과 일방적인 주장이나 상대방에 대한 공격, 조직적인 게시글 등록과 같은 극단적 의견표출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토론문화를 해치고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음
- 자신 또는 집단에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보를 의

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정보제공의 주체에 대한 의도적 사칭은 이용자 간의 신뢰를 해치고 있음

## 2.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방안

### ○ 성숙한 토론문화의 기본적 자질 확보를 위한 교육

-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토론에 대한 자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프라인 토론문화의 성숙은 온라인에서도 바른 글쓰기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임
- 따라서 명확한 토론규칙을 제시하고, 토론주제의 범위와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 주제의 찬반과 관련된 기사, 칼럼 등의 자료를 제시한 후 토론을 진행하는 등 올바른 토론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토론은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청소년 교육 과정에서는 토론의 비중이 높고, 교육 과정 전반에 토론을 필수 요소로 하고 있음

### ○ 수준 높은 토론공간을 위한 토론의 근거 생산 및 제공

- 양질의 토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토론의 근거자료인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주요 이슈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분석적인 논평을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온라인 여론 형성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온라인 토론문화의 미성숙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이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히 유통되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으므로 토론의 근거자

료인 지식·정보가 축적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합리적 중산층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함

- 블로그는 개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미디어이므로 책임 있는 글쓰기가 가능하고, 온라인 공간의 자정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블로그 홍보·교육을 통한 올바른 토론문화 활성화 시도는 유용할 것임
- 양질의 지식 생산을 위한 Pro-Am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인터넷의 장점이 살리는 것이 중요함
- 포털 등의 고수지식인, 파워블로거 등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합리적인 토론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의 룰을 형성하고 블로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 효율적인 토론공간을 위한 온라인 구조 개선

- 토론 및 대화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중재자의 존재 여부, 게시자의 기본정보 노출 및 포인트 시스템 등이 있으며, 토론의 구조와 규칙을 바꾸거나, 개인 댓글방 개설, 댓글 쓰기 방식 변경, 댓글 글자 수 제한 등으로도 올바른 글쓰기 및 대화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
- 네티즌의 자발적 편식을 막기 위해 상반된 성격의 사이트에 링크를 걸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정책 네트워크, 이슈 네트워크와 같이 정부와 시민을 연결해주는 조정기제를 통해 진지한 성찰과 토론을 유도할 수 있음
- 다양한 세대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는 정보격차 해소는 정보화의 공공성,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40~50대도 온라인에 활발히 참여하는 프랑스와 같이 토론문화의 성숙과 같은 문화적 역량을 축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네이버와 다음 모두 토론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댓글 쓰기 제한, 금칙어 방지 기능, 악성 댓글 신고, 게시중단 요청 및 이용제한 등 다양한 운영방침을 마련하고 있음
- 2008년 12월 17일, 7개 포털사업자는 업계 공동의 자율규제를 통한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함

### ○ 신뢰할 수 있는 토론공간을 위한 법·제도적 접근

- 법·제도의 시행이 온라인 공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법·제도는 바람직한 문화 형성의 기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온라인의 장점을 퇴색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법·제도가 필요함
-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용규제(심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임.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심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정치적 이슈 및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빠른 심의가 어려움
- 현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공공의 이익 추구, 공정성 확보를 고려해야 하며 규제 기구의 구성에서부터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합리적 인터넷 규제를 위한 관련 업계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네티즌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심의 기구가 필요하며, 이런 기구는 인터넷 규제의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와 동시에 법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윤리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접근으로 올바른 인터넷 토론문화 정립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임

## <차례>

<b>제1장 연구반 운영개요</b> .....	<b>1</b>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반 구성 및 운영 .....	3
<b>제2장 온라인 토론문화 현황</b> .....	<b>5</b>
제1절 온라인 토론문화의 문제점 .....	5
1. 자발적 참여, 그러나 자발적 편식의 문제 .....	5
2. 집단 분극화와 감정(감성)적 집단정체성 .....	6
3. 합리적 정보유통자가 아닌 온라인 활동가의 출현 .....	7
4. 극단적, 부정적 내용일수록 더 멀리, 더 빨리 확산되는 구조 (Architecture) .....	8
5. 정보의 오류와 검증미비 .....	9
6.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의 비극 .....	10
제2절 주요 온라인 포털의 토론서비스 현황 .....	12
1. 온라인 포털의 토론서비스 .....	12
2. 온라인 포털의 토론서비스 개선 정책 .....	15
<b>제3장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방안</b> .....	<b>17</b>
제1절 성숙한 토론문화의 기본적 자질 확보를 위한 교육 .....	17
1. 성숙한 토론문화 조성의 기본적 조건, 토론교육 .....	17
2. 토론교육의 중요성 및 방법 .....	18
3. 해외 토론교육 사례 .....	23
사례 1. 영국 <Center for speech and debate> .....	24

사례 2. 미국 온라인 토론사이트 <Debate-Central> .....	26
4. 국내 토론교육 사례 .....	28
사례 3. 한국토론협회 <Korea Debate Association> .....	28
사례 4. 청소년 전용 온라인 토론사이트 <글틴> .....	30
제2절 수준 높은 토론공간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 .....	33
1. 토론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공 .....	33
2. 양질의 지식 생산을 위한 Pro-Am 협업체제 구축 .....	34
제3절 효율적인 토론공간을 위한 온라인 구조 개선 .....	39
1. 온라인 구조(Architecture)의 개선 .....	39
사례 5. BBC 토론 게시판 <Have your say> .....	42
2. 주요 인터넷포털의 구조 개선 .....	46
3.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구축 .....	48
제4절 신뢰할 수 있는 토론공간을 위한 법·제도적 접근 .....	51
1. 인터넷 토론문화 정화를 위한 법·제도 .....	51
2. 인터넷 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 .....	52
3. 인터넷 규제기관 신설 제안 .....	58
사례 6. 프랑스 <FDI; Forum des droits sur l'internet> .....	59
사례 7. 영국 <Childnet International> .....	62
사례 8. 일본 인터넷사업자단체 <IAJAPAN> .....	64
<b>제4장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b>	<b>65</b>
제1절 온·오프라인 토론 교육 강화 .....	66
제2절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	68
제3절 공동규제(Co-regulation) 프로젝트 추진 .....	69



# 제 1 장 연구반 운영개요

## 제 1 절 연구목적

### ○ 우리나라 온라인 문화의 특성 및 문제점 집중 진단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비해 성숙한 온라인 문화의 정착이 미흡함. 인터넷은 다양한 이슈와 관심사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욕설, 루머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 성숙한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비합리적인 여론 확산을 주도하고 있음
- 네티즌들에게 온라인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성숙하고 합리적인 온라인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적, 법·제도적, 구조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함

### ○ 한국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실현

-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

한 자유민주주의임.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라인에서 민주, 평화, 신뢰, 성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론문화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하기 위함임

## 제 2 절 연구반 구성 및 운영

### ○ 연구반 구성

- 연구반은 포럼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 ※ 학계, 파워블로그, 시민단체 및 NGO, 온라인 언론 등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 토론

<표 1-1> 연구반 구성

구 분	이 름	소 속	비 고
정보문화포럼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포럼 의장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장	포럼 운영위원
	백재현	조인스닷컴 이사	민주분과위원장
	최두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센터장	포럼 간사
업체 관계자	김성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포털업계
	한 영	한국블로그산업협회 사무국장	블로그 업계
기자	김익현	아이뉴스24 대기자	외부전문가
학계	이준웅	서울대학교 교수	언론정보학과
일반시민	조슈아 박	한국토론협회장	토론협회 운영
연구반 간사	김은정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팀장	

### ○ 운영방안

- 운영기간 : 08. 10. 9 ~ 08. 12. 15 (2개월)
- 운영방식 : 매주 연구반원 및 외부 인사 참여하는 정례회의 개최

## ○ 연구내용

<표 1-2> 주요 연구 내용

구 분	주요 연구 내용
1주	착수회의 / 온라인 여론 현황과 문제점 - 현황과 이슈, 문제점 정리, 운영계획 협의
2주	온라인 여론 관련 포털의 입장과 정책 - 뉴스댓글, 토론커뮤니티 운영정책 등
3주	온라인 참여 및 여론에 관한 이론적 쟁점 -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인격권 등
4주	온라인 여론 관련 파워블로그 및 네티즌의 입장 - 익명성, 언어폭력, 객관성 및 전문성 등
5주	온라인 토론 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 주부, 중장년층 등의 참여확대 - 네트워크 core 형성 등
6주	온라인 토론 방식 및 구조의 개선 - 제도적, 기술적인 토론방식의 개선과제 등
7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유통 - 정보의 검증, 오류의 최소화 방안 등
8주	종합 토론 - 합리적인 정책 대안 및 실천 방안 등 정리

## ○ 연구보고서 작성

- 연구보고서는 연구위원과 발표자가 8주간의 회의동안 발제·논의한 녹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 제 2 장 온라인 토론문화 현황

### 제 1 절 온라인 토론문화의 문제점

#### 1. 자발적 참여, 그러나 자발적 편식의 문제1)

##### 가. 합리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자발적 편식

- 1)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자기가 원치 않는 정보도 우연한 기회에 접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 시대에는 자신이 활동하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여론이 편향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
- 2) 인터넷공간에서는 취미나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시각이 편중될 수 있음
- 3) 말할 자유는 증가되었으나, Argument Pool이 감소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만 골라서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객관적 의견형성이 어려워짐

##### 나. 반향실 효과 Echo-chamber effect<sup>2)</sup>

- 1) “좁은 세상 네트워크는 정보의 증폭기 겸 여과기 역할을 한다. 시스템

---

1) 윤영철,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7차 회의, “인터넷과 합리적인 소통”

2) 반향실 내 음향처럼 폐쇄 공간 안에서 같은 정보와 아이디어가 돌고 돌며 강화되는 현상(Clay Shirky, 2008)

안에서는 정보가 친구의 친구들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들 역시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향이 있다. ……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그들의 친구들 중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식은 여러분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낮다.”<sup>3)</sup>

- 2) ‘반향실 효과’를 극복하고 다양하고 많은 정보와 해석에 접근할 수 있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은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함. 구조적 공백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제 마련이 필요함

## 2. 집단 분극화와 감정(감성)적 집단정체성<sup>4)</sup>

### 가. 부당한 강자와 정당한 약자의 대립구도

-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노무현대통령탄핵사건, 효순·미선 사건 등 인터넷을 통해 여론동원에 성공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부당한 강자와 정당한 약자의 대립구도를 형성했다는 것임

### 나. 감성적 폭발

- 1) 부당한 강자와 정당한 약자의 대립구도에서 약자의 분노가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일반대중의 감성적 폭발(public anger)을 유도했음. 원초적 감정(분노)의 공유를 통해 수평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온라인 집단들이

---

3) Clay Shirky, 2008, Here Comes Everybody

4) 윤영철,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7차 회의, “인터넷과 합리적인 소통”

‘대세’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여론 동원에 성공함

- 2) 사례 : 옥정여중생 사망(2000), 총선연대낙천낙선운동(2000), 386의원광주술판사건(2000), 형제갈비 종업원 사망(2001), 효순미선 관련 촛불시위(2002), 노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2004), 서귀포 부실 도시락과문(2005), 개똥녀 사건(2005), 광우병관련 촛불시위(2008) 등

### 3. 합리적 정보유통자가 아닌 온라인 활동가의 출현

#### 가. 온라인 활동가, 그들은 누구인가?

- 1) 온라인에는 초기발화자, 확산자, Online opinion leader, Supporters, Followers(인기연예인 팬카페 열성회원, 펌족, 논객, 파워블로거, 고수 지식인, 사이버위리어, 사이버게릴라, 알바, 초딩) 등이 존재함
- 2)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여중생이 몇 만 명 참여한 계기는 주로 10대 팬카페 핵심운영진들의 활동 때문이었으며, 이외에 패션, 음식 동호회처럼 평상시에는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집단들이 촛불 집회에 대거 참여함. 이는 일명 사이버위리어, 알바, 초딩과 같은 합리적 정보유통자가 아닌 온라인 활동가들의 영향때문임

#### 나. 오프라인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도전

- 1) 온라인 활동가로 유명한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에 대한 예상을 적중시키며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는 호칭까지 들었음. 미네르바 외에도 SDE, 명사십리,

마포강변, 상승미소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30~40대들이 경방고수(다음 아고라 경제토론폰방 고수)로 활동하고 있음<sup>5)</sup>

- 2) 미네르바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중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나와 혼란이 가중된바 있는데, 네티즌들이 아마추어인 미네르바에게 열광한 이유는 정부, 기관, 학계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예측이 없었고 온라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없었기 때문임. 이 사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마련임

#### 4. 극단적, 부정적 내용일수록 더 멀리, 더 빨리 확산되는 구조 (Architecture)

##### 가. 자극적 내용이 추가되며 확산

- 인터넷 루머는 선정적, 극단적으로 강화, 확산되고 있음. 선정성과 자극성이 강할수록 확산범위가 커짐. 개똥녀 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음에도 주로 유통된 것은 무례하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했다는 내용뿐이었음. 나훈아 관련 루머는 자극적 내용이 추가되면서 계속 확산됨.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지만 이 중에서도 온건하고 논리적인 정보는 유통범위가 좁음

---

5) 한겨레21, 2008.12.1, “황혼의 미네르바들”

## 나. 클릭지상주의의 결과, 온라인 대세주의

- 가입자 수, 방문 수, 추천 수 등 클릭지상주의의 결과인 온라인 대세주의 때문에 포털 등의 실시간 검색순위가 왜곡되고, 정확한 정보보다는 흥미위주의 정보가 유통되는 경향이 있음

## 5. 정보의 오류와 검증미비

### 가. 정보의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시스템

- 1) '집단지성', '대중의 지혜'에는 양면성이 존재함.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옥석을 가리기가 상당히 힘들며 집단지성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다소 위험한 접근임
- 2) '연세대 백양로 교통사고 사기' 사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비난 받은 여학생이,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뒤, 오히려 잘못된 정보 유통의 피해자로 드러남
- 3) 이외에도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문제 (잘못된 정보가 쉽게 확산되는 구조), 미네르마처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오피니언리더 (블로거, 온라인 논객 등)의 권위를 검증하는 문제 등이 있음

### 나. 정보의 확산, 재구성, 왜곡

-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무엇이든 기록되며, 언제나 검색이 가능함에 따라 정보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검

색된 정보가 결합되어 새로운 정보로 재구성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정보가 구성되는 방식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정보 왜곡은 오프라인에서의 정정보도, 사과문 게시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6.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의 비극

### 가. 공유지의 비극

- 기술의 발전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공유 자산을 창조하여, 인류가 이용할 수 있게 하였지만, 어떻게 이용,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함. 실제로 적당한 감시와 제재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참가자들은 공공의 이익보다 사리를 먼저 추구하고, 따라서 공공재는 매우 빠르게 소멸하는 것이 관찰되었음<sup>6)</sup>

### 나. 공유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건

- 1) 라인골드 Howard Rheingold는 공유지의 비극은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불리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며, 사회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에 따르면, 공동 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지적

- 성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체계가 존재하며, 공동체 성원들 스

---

6) Howard Rheingold, 2002, *Smart Mobs - The next social revolution*

스로 이 감시 임무를 맡는다.

- 처벌의 누진 체계가 사용된다.
- 공동체 성원들이 저렴한 분쟁 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 2) 라인골드는 네트워크라는 공공자산에서의 '평판 체계'가 감시와 제재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으며, 또한 사용자들 스스로가 가치 있는 평과 무책임한 평을 선별해내는 '평판 여과 체계의 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3) 그러나 온라인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한국 온라인 공간의 현실에서는 익명성에 바탕을 둔 무례, 호전성, 가학성, 무책임이 판치고 있어 관리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이 재현되고 있음
- 4) 온라인에서 네티즌 스스로 자정력을 갖고 평판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제 2 절 주요 온라인 포털의 토론서비스 현황<sup>7)</sup>

### 1. 온라인 포털의 토론서비스

#### 가. 뉴스 댓글 및 토론서비스 개요

- 1) 뉴스 댓글은 단순 기사제공이 아닌 쌍방향 미디어 속성으로 이용자가 다양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의견 조합을 통해 기사 텍스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2) 토론서비스는 다양한 이슈와 관심사를 공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이 있으며, 게시판에서 다양한 의견이 상호 전달, 소통됨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한 공감의 형성 또는 공론화가 가능함
- 3)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뉴스 댓글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그 뒤를 이어, 아예 없거나 부분적으로 사전승인제로 운영하던 일본에서 최대 포털 야후제팬이 2007년 10월 실시간 뉴스 댓글 게시판을 채택한 것과 야후 중국에서 뉴스 댓글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 나. 뉴스 댓글 및 토론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1) 사이버 폭력

---

7) 김경달,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2차 회의, “포털 뉴스서비스 내 댓글”,  
최성진,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2차 회의, “뉴스 및 토론서비스 이용자 의사표현의 합리적 활성화를 위하여”

- 가) 주로 인신공격, 개인정보 노출, 비방 및 욕설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인터넷의 비대면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인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적 의사표현이 발생할 수 있음
- 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책임의 분산 효과로 인해 특정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음
- 다) 사이버폭력은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현행법(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규제할 수 있으나, 주로 개인의 인격적인 측면의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이 더욱 중요함

## 2) 극단적 의견표출

- 가) 일방적인 주장이나 상대방에 대한 공격, 조직적인 게시글 등록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건전한 토론문화를 해치고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음
- 나) 개인의 의견 표출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이용자에게 피로감 및 불신을 가져오고 공급자의 정상적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함

## 3) 의도적 왜곡 또는 사칭

- 가) 자신 또는 집단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정보제공의 주체를 타인으로 사칭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용자 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문제임
- 나)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는 다수 이용자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

한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다수가 신뢰할만한 정보라고 판단한 내용이 왜곡된 것일 경우 온라인의 복제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신뢰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 4) 이해관계의 충돌

- 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관계의 집단 또는 개인 사이에서,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
- 나) 기업과 노동조합, 기업과 소비자,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은 댓글, 게시글 등을 통해 알리려는 노력 또는 이를 막으려는 노력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1차적으로 게시판을 운영하는 기업, 2차적으로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
- 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확산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게시물의 일시적인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는 요청내용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현행법에 따라 임시조치 함
- 라)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행정력 또는 사법 기능을 이용하여 갈등을 해소하여야 하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관계로 게시판 운영자에게 요구가 집중되는 상황임. 이는 인터넷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판단절차 및 조정절차 등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 2. 온라인 포털의 토론서비스 개선 정책

### 가. 네이버의 토론서비스 개선 노력 및 규제 시스템

- 1) 댓글의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키기 위해 블라인드 제도, 의견 숨기기, 관심/차단 이용자 기능 등을 운영하고 있음
- 2) 2002년 10월부터 주민등록 번호 기준으로 ID를 세 개로 한정해 생성하게 하고, 로그인 기반 서비스로 뉴스 댓글을 운영하고 있음
- 3) 2007년 7월부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했으며, 악성댓글 감소를 위한 '댓글 쓰기 제한(하루 10개미만)'기능을 마련함
- 4)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고 버튼'을 운영하고, 400명의 모니터링 인력이 배치되어 24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명예훼손 당사자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함
- 5) 각종 욕설, 음란성 단어, 비속어, 불법 성인사이트 주소, 돈벌기 사이트 주소 등을 포함한 '금칙어 기능'을 마련함
- 6) 이외에도 반복 게시자에 대한 제한 조치, 댓글 독자들의 추천을 통해 댓글공간을 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

### 나. 다음의 토론서비스 개선 노력 및 규제 시스템

- 1) 뉴스 댓글 기능의 개선을 위해 이용자별 댓글 확인 기능 (일종의 게시자의 신뢰성 확인 기능), 댓글 보기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펼치기·닫기 기능) 등을 마련하고 있음
- 2) 토론 서비스 기능의 개선을 위해 이용자별 글 확인 기능, 아이피 일부 공개, 1일 게시글 등록 횟수 제한, 자동배치 영역 개선 등을 시행함

- 3) 자회사인 '다음서비스'를 통해 약 300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1일 3교대, 24시간, 365일 필터링 및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클린인터넷 캠페인을 인터넷기업협회, 업계, 정부부처,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추진함

#### 다.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 발족<sup>8)</sup>

- 1)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프리첼, 하나로드림, KTH, NHN, SK커뮤니케이션즈 7개사는 2008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정책협의회'에서 발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법·유해 게시물에 대한 처리를 전담할 공동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함
- 2) 2008년 12월 17일 포털사들이 업계 공동의 자율규제를 통한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이하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함
- 3) 자율규제협의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이용자가 피해 구제를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 사 신고센터와 연계해 시스템과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8) 한국기자협회, 2008.12.17, “포털 7개사, 자율규제협의회 발족”

## 제 3 장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 방안

### 제 1 절 성숙한 토론문화의 기본적 자질 확보를 위한 교육

#### 1. 성숙한 토론문화 조성의 기본적 조건, 토론교육

##### 가. 젊은 세대의 자극적, 감성적 성향에 의해 여론 주도

- 1) 현재 온라인 공간은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며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감성적, 자극적 성향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2) 인터넷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젊은 세대는 인터넷 상의 인신공격,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인 여론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나.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토론 자질 확보가 필요

- 1) 오프라인 토론문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토론 공간이 확대되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무책임한 토론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는 네티즌들이 바른 글쓰기와 토론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본보기가 부족한 실정임. 온라인 토론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토론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임
- 2) 이를 위해 인터넷 공간의 주요 행위주체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토론 및 글쓰기 교육이 필요함

## 다. 토론교육에 대한 제안

- 1) 토론장에서는 명확한 운영규칙이 필요함. 토론주제의 범위와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하며, 이를 위해 주제의 찬반과 관련된 기사, 칼럼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해야 함
- 2) 온라인 토론의 기본 규칙으로는 우선 찬반양론의 2인만 토론에 참여하고(일반 이용자는 관찰만 가능), 각 참여자에게 3번의 발언 기회를 주어, 주장의 근거가 정확한지, 논리가 타당한지, 설득력이 있는지, 표현(언어, 용어)이 정확한지 등의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네티즌(청중, 관객) 투표로 평가함. 네티즌의 평가결과로 나이, 지역, 성별에 따라 어떤 평가를 하였는지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임
- 3) 효과적인 토론교육을 위해서는 온라인 글쓰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며 경제적 패널티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터넷 게시물 중 네티즌 투표를 통해 베스트와 위스트를 선정하여 바른 글쓰기를 독려할 수 있음

## 2. 토론교육의 중요성 및 방법<sup>9)</sup>

### 가. 토론교육의 중요성 및 학습적 효과

- 1) 토론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이나

---

9) 조슈아박,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6차 회의, “토론식 교수법”

잡지나 신문의 사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 토론장 등의 대중적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 2)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은 무엇이 그들의 사회를 위한 최선의 길이고 사회의 법과 정책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틀이 잡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함
- 3) 미래의 리더를 창출하는데 꼭 필요한 지적운동으로써의 토론은 상대방의 논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단점을 파악, 그에 맞추어 자신의 입장을 전개해 나가는 것임. 성공적인 토론자에게 있어 논리성은 필수적이며,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지식, 그리고 청중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고 순발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재치와 쇼맨십이 필요함. 결과적으로 토론은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특성들인 논리적 사고와 지식, 그리고 자신감과 재치를 키워나가고 평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임
- 4) 토론은 여러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읽고, 조사하고, 쓰고, 말하는 실력을 크게 향상시킴. 이 네 가지는 학습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모든 공부, 특히 논술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며 토론은 이러한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줌

## 나. 토론교육의 기본사항

### 1) 읽기

- 토론은 논리와 그 논리를 뒷받침할 지식을 필요로 함. 토론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시사, 기초적 정치, 경제 이론과 통계 등을 알아야 함.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읽고, 블룸 교육법 Bloom's Taxonomy이 권장하는 바와 같이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질문을 통해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면, 단지 사실적 요소를 알아내고 인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실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됨<sup>10)</sup>

## 2) 조사하기

- 토론자는 읽기에 앞서 필요한 내용 검색 등의 토론준비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자료가 신빙성이 높은 자료인지, 주제에 따라 어떤 자료를 보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됨

## 3) 쓰기

- 토론에는 논리성, 간결하게 정리된 내용, 호소력 있는 스타일이 필요한데 이는 훌륭한 작문에 필요한 기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토론에 앞서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 필요함. 토론자는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기억을 일깨울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지면에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는 법을 학습해야 함.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법을 배운다면, 토론자는 그 사고를 이용해 호소력 있게 글 쓰는 기술을 연마하게 될 것임

## 4) 말하기

- 토론은 청중이나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임. 청중의 마음

---

10) Benjamin Bloom,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속에 가장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 토론자는 1)가장 효과적인 표현, 단어, 문장을 사용하는 법 2)가장 적합한 표현, 품위 있는 언어와 편안한 언어를 조합하여 강조하는 법 3)명확하게 발음하고, 논리 정연하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을 익혀야 하며, 4)시간 제한과 내용을 고려하여 청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배워야 함

- 또한 토론자의 역할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토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팀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 자신의 팀이 토론 내내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과 상대편의 발표를 계속 듣고 분석해야 하며, 토론자는 상대편의 주요사상을 식별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잘 듣는 기술 역시 습득하게 됨. 이러한 방식에 따라 교육 받은 학생들은 비평적이며 유연성 있는 사고와 표현력을 지니게 됨

## 다. 토론교육 방법

- 토론교육에는 3단계 토론준비, 토의, 토론이 필요함

### 1) 토론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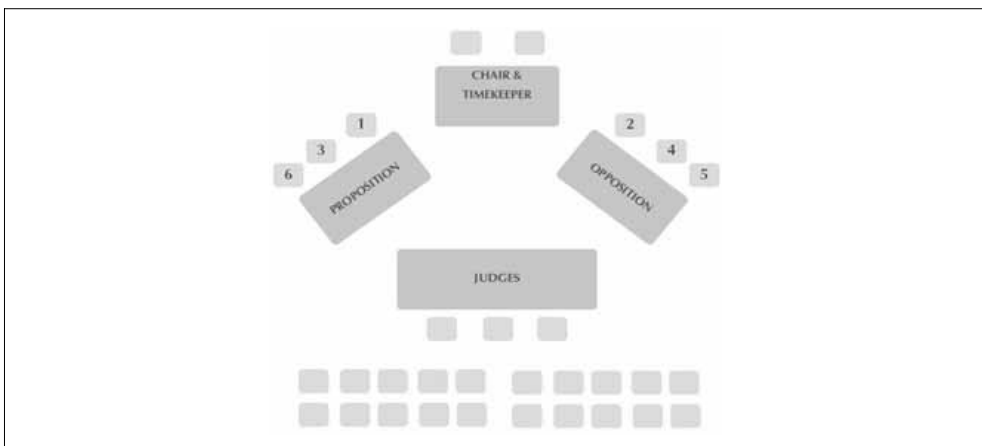
- 이 단계에서 토론자들은 읽기와 조사하기 기술을 사용함. 처음에는 주제와 더불어 관련된 자료를 토론자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으나 자료를 토론자들이 스스로 찾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임. 주제와 관련해서 블룸 학습법의 여섯 개의 사고 단계(지식, 이해, 적용, 분석, 창작, 평가)

를 자극하는 질문들을 해주는 것이 좋음

## 2) 토의

- 토의는 토론수업의 두 번째 단계로, 이 단계의 목적은 토론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임. 이 단계를 진행할 때 중재자 또는 교사는 토론자들에게 어떠한 정답을 가르쳐 주려하거나 스스로의 의견을 강조해서는 안됨. 물론 토론자들이 지나치게 한 쪽 의견으로 치우칠 경우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으나 토의 수업에서 교사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해야 함. 소크라테스 수업 방식은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사용했다는 교수법으로 여러 답들과 해결책을 유도하는 질문들이 주를 이루며 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임

<그림 3-1> 3대3 토론 배치도 (Mace 방식)



### 3) 토론

- 체계화된 토론 formal debate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링컨-더글라스 방식은 1대1 디베이트 스타일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임. 이에 더해 2대2, 3대3 등 찬성 및 반대 팀을 만들어 토론자들이 스스로의 의견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에 있는 다른 토론자들과 팀으로서 일치된 의견을 내게 하는 방식 역시 효과적임

## 3. 해외 토론교육 사례

### 가. 미국의 토론교육 및 대회

- 1) 미국 청소년 교육 과정에서는 토론의 비중이 높음. 학교 수업에는 항상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이 들어 있으며, 교육 과정 전반에 토론을 필수 요소로 함
- 2) 초등학생들이 토론문화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와 같은 직접적인 이슈를 주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3) 전국적 규모의 토론 대회를 장려하고 있으며, 대학입시, 대학 간 경쟁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토론대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음. 특히 전국 규모의 토론대회 우승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쳐야 하며, 많은 토론자들이 이를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각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많은 토론동아리가 존재함

- Stanford High School Invitational : 스탠포드 대학이 주관하여 고등학교를 초청하여 여는 토론 토너먼트 대회로서, 매년 참석자가 1000여명에 이를 정도의 대형 대회임. 이외에도 다트머스, 미시건, 켄터키, 노스웨스턴, 아이오와 주립대 등 대학들이 여름방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함
- NFL (National Forensic League) : 80년 역사를 가진 토론대회로 미국 내 3500명의 고교 선생님과, 93,000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음. 미국 전역과 해외에 116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함. 매년 6월 열리며 정책, 입법, 공공포럼 토론 등 다양한 주제를 논함
- Debate-Central : 미국 비영리기관인 NCPA(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의 주관으로 1996년 시작된 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토론 사이트임. 주요 목적은 저혜택·저소득 학교지구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최상의 토론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주요 공공정책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균형 잡힌 이해를 가능하게 함 (<사례2> 참조)

## 나. 해외 토론교육 사례

### 사례 1. 영국 <Center for speech and debate>

- 성격
  - 영어사용자연맹(ESU; English Speaking Union)에 의해 운영되는 토론 및 연설 센터로서 1996년 설립됨. ESU(영어사용자연맹)은 영어를 통해 국가간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 자선단체. 토론과 관련해서는, 토론 및 연설 센터 운영, 토론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 등의 활동을 함

- 역할
- 토론대회 운영
  - John Smith Memorial Mace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토론 대회로 150개가 넘는 팀이 참가함.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토론에 심취하도록 하는 것임
  - National Mooting Competition : NMC는 영국에서 가장 명성 있는 모의법정으로서, Essex Court Chambers의 후원을 받음. 연간 50개 이상의 대학이 참가하며, 결승은 왕립재판소 등의 유명한 장소에서 개최
  - Dartmouth House Debating Society : ESU 전·현 멤버들, 초·중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대중 모두를 대상으로 함. 토론 입장은 무료임
- 토론 트레이닝 제공
  - Discover Your Voice, Debate Academy, the Speech and Debate Squad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학생 및 교사들에게 토론 트레이닝을 제공함. 많은 대학생들이 초·중등학생을 위한 ESU의 프로그램들에 코치·멘토로 참가
  - Discover Your Voice : 학교에서 토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토론관련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등을 제공
  - 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 교사훈련 프로그램임. 교사들을 위해 토론대회에서 우승하는 방법, 교실 수업에서의 토론교육 방법,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자신감과 비판적 사고 스킬을 함양하는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
  - Debate Academy : 토론 초보자, 숙련자 상관없이 14~18세를 대상으로 함. 토론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 코스별로 토론 아카데미 워크샵

을 진행하며 교수진은 토론 전문가들로 구성됨. 워크샵 참가비는 200 파운드이지만 장학금 제도가 있으며, 매년 약 120명 학생을 수용

- The ESU Speech & Debate Squad : 경쟁적 인터뷰를 통해 선택된 영국 대학들의 우수한 토론자들로 구성됨. 각 년도의 팀(squad) 구성원들은 해외 ESU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어에 참가하는데, 취학 아동들, 대학생들, ESU 구성원들,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함

- 유관기관 및 재원조달

- 교육기술부, 사법부, 코카콜라 브리튼, HSBC, Tesco PLC 등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토론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ESU 토론연설 센터는 급속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센터는 기업, 교육기관, 일반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경쟁적 토론, 대중연설 등에 대한 상업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충재원을 마련

## 사례 2. 미국 온라인 토론사이트 <Debate-Central>

- 성격

- 미국 비영리기관인 NCPA(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sup>11)</sup>에서 주관하는, 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토론 사이트로 1996년부터 시작됨. 주요 목적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최상의 토론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주요 공공정책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균형 잡힌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

11) <NCPA: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는 1983년에 창설된 thinktank로서, 공공정책 문제들에 대해 자유시장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communications and research 재단으로 Funding은 재단 기금 62%, 기업후원금 21%, 개인후원금 17% (2006년)로 구성

- 역할
  - 토론 자료 및 증거(evidence) 제공
  - 온라인 토론 공간 제공 - 토론자들 연결, 최근 이슈 및 토픽 제공
  -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 고등학생의 경우 무료임
  - 고등학생들에게 관련자료 링크, 일류학자들이 쓴 배경 글, 공공 서비스에 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기회 등을 제공
  
- 구성원
  - 관리자 (Administrator) : 사이트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 공지사항 공지, 각 토론방 조정, 토론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욕설, 비방하는 글 제재
  - 주요 전문가 (Leading Experts) : 토론주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 연구 실적, 프로필,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토론자들이 토론주제와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음
  - 토론 전문가 (Debate Experts) : 토론 게시판에서 토론자들의 물음에 답하거나 의견을 모아서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 토론자들 : 가입회원들
  
- 웹사이트 구성
  - Research current topics
    - Cross-examination 방식<sup>12)</sup> / Lincoln-Douglas<sup>13)</sup> 방식 별로 토픽 제시

---

12) 교차조사(Cross-Examination) 방식은 아카데미식(교육) 토론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식임. 참가자는 매회 토론마다 추첨을 통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결정하게 되므로, 사전에 찬성·반대 입장 모두의 논거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어느 입장에서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어야 함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http://politicalcommunication.or.kr>, 2009.2.24)

13) 링컨-더글라스(Lincoln-Douglas) 방식은 1대1 디베이트로 윤리적 가치와 철학을 강조

후, 토론 주제 분석 : 관련 자료, 주요용어 정리, 관련기사 링크, 토론 질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인용 구문 제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총정리 자료 제공

- 토론 주제 : Alternative Energy, National Service, Civil Liberties, UN Peace keeping, Ocean Policy, Mental Health,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Secondary Education, Renewable Energy, Juvenile Crime 등
- Evidence -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 제공
- Learn about debate - 토론 교육
- Visit our forums - 토론방 운영
- Just Debate-No Chit Chat! - 중요 이슈에 대해 잡담 없이 토론
- Old Topics - 오래된 주제들은 이곳으로 이동
  
- 기타사항
- 현황 (1996~2008현재) : 총 등록 사용자수 6,203명, 총 토픽 수 4,772개, 총 여론조사 수 133회, 총 게시글 수 137,183개
- 각 게시판마다 4명의 moderator가 활동
- Ask the experts : 토론주제에 관해 일류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조언 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 링크

#### 4. 국내 토론교육 사례

##### 사례 3. 한국토론협회 <Korea Debate Association>

◦ 개요

- 2004년 설립되어 영어 및 우리말 토론을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운영
- 토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자리 잡고 활발한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 세계 고등학생 토론 챔피언십 (WSDC) 주최기관인 세계학교토론협회 (World Schools Debating Council) 에서 공식문서상으로 인정한 한국대표 토론기구이며, 국제토론교육협회 (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미국의 국가토론프로젝트 (National Debate Project), 하버드 의회토론협회 (Harvard Speech and Debate Society) 의 협력기구

◦ 주요활동

- 건전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 기반 구축·운영
- 외국어 및 한국어 토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토론 경연대회 개최 및 해외 토론 경연대회 참가 (선발 및 훈련)
- 토론 능력 및 토론 교수능력 인증 (토론전문가 및 토론지도자 육성)
- 토론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입안 지원 등

◦ 주요대회

- Korean High School Debating Championship (고등학생 전국토론대회), Korean Interschool Debating Championship (대학생 전국토론대회), Northeast Asian College Debate Championship, Young Challenger International Youth Debate Forum (대학생 국제토론대회)

## 사례 4. 청소년 전용 온라인 토론사이트 <글틴>

### ◦ 개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만든 국내 유일의 청소년전용 온라인 문학사이트로 '글쓰며 노는 청소년'의 준말임. 시, 비평&감상글, 생활글, 이야기글 등 4개 부문의 온라인 글쓰기 공간을 제공하며, 청소년 전용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음
-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온라인 글쓰기 공모전을 진행함. 현역 작가, 문학담당 교사 등 글쓰기 전문가 선생님들이 각 글쓰기 게시판을 전담해 관리 하고 청소년들이 쓴 글에 대해 평가하고 글쓰기를 지도함. 각 글쓰기 게시판별로 매주, 매월 우수작을 선발하여 상품을 제공함. 월별 우수작들은 따로 모아 연말에 '글틴 청소년 문학상 대상' 수상작을 선발함

### ◦ 토론방 '왁자지껄' 운영

- 처음에는 운영자가 2주에 한번 토론주제를 제안, 진행하고 심사평을 남기는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토론주제 선정부터 진행까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함
- '제안하기' 방을 통해 제안한 토론주제는 메인화면의 토론방으로 옮겨져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함.
- 토론방의 주제들은 '독신자 입양허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학습 감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레리나의 누드사진, 표현의 자유인가 외설인가?', '수능등급화, 과열입시경쟁완화효과 있을까?' 등이 있었음

- 글쓰기 공간 운영
  - ‘쓰면서 뒹글뒹글’, ‘읽으며 뒹글뒹글’, ‘생각하며 뒹글뒹글’ 세 가지 코너로 구성됨
  - 연중 글쓰기 대축제는 ‘쓰면서 뒹글뒹글’ 코너에 해당
  - ‘읽으며 뒹글뒹글’에는 전문 문인들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특별히 집필한 읽을거리들이 있음. ‘우리 문학속 명문장’, ‘문학을 위한 철학통조림’, ‘그순간’, ‘장르문학 마구 파헤치기’, ‘신작청소년 소설’, ‘숨어있던 책’ 등이 있음
  - ‘생각하며 뒹글뒹글’ 코너는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책 세상’, 문학관련 학과 입시정보 등을 알려주는 ‘문학으로 진로찾기’ 등이 있음.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글쓰기 전문지도 코너인 ‘문장클리닉’ 등을 마련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인 토론교육이 필요

- 국내에서도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외 사례들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토론교육 사이트가 부족함
- 한국토론협회는 영어 및 우리말 토론을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어 토론 교육, 국제 토론 대회 개최 등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글틴은 제공되는 모든 글과 정보가 문학적 글쓰기를 위주로 제한되어 있으며, 토론방 왓자지껄은 처음에는 운영자가 진행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운영자 없이 진행되고 있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음
- 청소년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명확한 운영규칙  
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중재자가 존재하는 토론방 운영이 필요함

## 제 2 절 수준 높은 토론 공간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

### 1. 토론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공<sup>14)</sup>

#### 가. 토론의 근거자료가 되는 전문적 지식·정보 제공

- 토론이 활성화되고 양질의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론에 필요한 참고자료가 제공되어야하나, 현재 한국의 온라인 토론장에서는 이것이 부족함. 토론문화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좋은 글이 활발하게 유통되지 못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음. 사회 주요이슈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여 네티즌들이 토론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함

#### • 현재 주요 이슈에 실시간 대응하는 신속한 정보 제공

- 1)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 이슈를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분석한 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접할 수 있고,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판별력을 키워줄 수 있음
- 2) 네티즌은 주요 사회 이슈에 빠르게 반응하는데 이들의 활동에 비해 전문가들의 글쓰기 활동이 뒤처지는 것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이 보장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 쉽고 빠르게 글을 올

---

14) 이각범,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임

- 3)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온라인 토론을 위한 참고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의 신설이 요구됨

## 2. 양질의 지식 생산을 위한 Pro-Am 협업체제 구축

### 가. Pro-Am 협업체제 : 전문가와 시민기자의 협업<sup>15)</sup>

- 1)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인터넷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함. Crowd-sourcing Journalism은 일반 군중도 주요 정보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임
- 2) 전문가와 시민기자의 협업이 필요함. 포털의 고수지식인, 파워블로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전문가가 파워블로거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티즌을 활용하는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음. 위키피디아에서도 지식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나. 파워블로거와 커뮤니티의 활용

- 유사 관심패턴으로 모이는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활용하여 양질의 정보를 축적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질이 높다면 참여하는 블로거들 모두에게 확산될 것임. 양

---

15) 윤영철,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7차 회의, “인터넷과 합리적인 소통”

질의 커뮤니티(블로그, 게시판, 토론방) 생성과 확산을 지원해야함

### [참고] 파워블로그란 무엇인가?

- 파워블로그는 독자를 끌어 모아서 사회적 이슈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블로그를 지칭함. 현재 파워블로그라고 지칭되는 블로그가 이러한 힘을 갖고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 ‘2008 네이버 파워블로그’ 선정기준

‘2008 네이버 파워블로그’는 **블로그 활동성, 블로그 인기도, 포스트의 주목도, 포스트의 인기도**를 종합적으로 집계해 선정했습니다.

**블로그 활동성** 지수는 블로그 운영기간, 포스트수, 포스트 쓰기 빈도, 최근의 포스트 활동성이 포함됩니다. 모든 방문자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작성된 포스트만을 대상으로 집계하며, 포스트의 직접 작성 여부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블로그 인기도** 지수는 방문자수, 방문수, 페이지뷰, 이웃수, 스크랩수가 포함됩니다. 같은 방문자가 여러 번 방문하는지(방문자수와 방문수), 한 번의 방문으로 포스트를 얼마나 보고 가는지(방문수와 페이지뷰)를 세부적으로 집계했습니다. 그에 따라 특정 지표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포스트 주목도** 지수는 블로그홈의 ‘주목 받는 글’과 동일한 주목도 지수를 활용했습니다. 포스트 내용이 충실하고, 많은 방문자들이 포스트를 읽고, 댓글과 공감을 남길수록 주목도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블로그에 속한 포스트 전반의 주목도 점수를 활용하므로, 포스트 단위의 주목도 지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포스트 인기도** 지수는 댓글, 역인글, 공감, 조회, 스크랩 등 포스트 단위의 반응지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각각의 반응을 내가 남긴 것인지, 이웃이 남긴 것인지, 타인이 남긴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반영됩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별 블로그를 소개하기 위해 주제별로 반응지표의 비중을 달리 집계했습니다.

출처 : 2008네이버 파워블로그에 선정되었어요~ 작성자 파란토끼

- 네이버에서 매년 블로그 활동성, 블로그 인기도, 포스트의 주목도, 포스트의 인기를 종합적으로 집계해 '네이버 파워블로그'를 선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요리, 여행, 육아 등에 집중되어 있음. 월간 <말>지에서도 정치, 사회, 인문, 국제, 생활, 여행, 문화, 예술, 스포츠, 인터넷, 게임으로 분류하여 '파워블로거' 50인을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블로그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하고 피상적이며,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음
- 온라인 최대 포털, 오프라인 언론사 등에서 선정하는 파워블로그 순위 경쟁으로 인해 블로거 본인의 진지한 관심과 의견을 피력한 내용보다는 일반 네티즌들이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감성적 이슈를 올려 조회수를 높이는 일명 '호객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수익모델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기도 함 (구글 애드센스로 7~8천만원 정도 수익을 내는 극소수의 블로거도 있음)<sup>16)</sup>

#### 파워블로거가 되는 방법

- 검색의 달인이 되어라.
-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라
- 최신 검색동향을 파악하라.
- 블로그 꾸미기에 정통하라.
- 글쓰기 연습을 많이하라.
- 이웃을 잘 선정해서 많이 맺어라.
- 네티즌을 이해하고 공감 시켜라.
- 좋은 블로그를 분석하라.
- 블로그 약관을 숙지하라.
- 최상의 콘텐츠를 잘 정리하라.

출처: OptWeb Blog

16) 민노씨,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4차 회의

- 파워블로거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가지는 물리적 시간 투자와 개성 있는 콘텐츠임
- 네티즌의 흥미를 자극하는 이슈가 아니어서 노출되고 있지 않는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있음. 이러한 콘텐츠들이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그러나 현재 특정 포털이나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파워블로그’ 선정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정치, 사회 이슈와 같은 요소들은 거의 배제되어 있으며 진지한 블로그들은 소외되고 있음

#### 다. 온라인 토론문화 개선을 위한 블로그 활성화 방안 : 어떻게 하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게 할 것인가?

- 1) 블로그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도구임. 어떻게 하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게 할 것인가? 블로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은 홍보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지원이 요구됨. 블로그 지원 사업을 운영할 때 객관성, 신뢰성을 갖춘 심사기준이 있어야 하며 투명한 후원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정부는 블로그의 다양한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함
  - 정부부처별 블로그 관련 프로그램
  - 기획재정부 “제1기 블로그 기자단” 모집 (2008.9) : 재정부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뉴스, 사진, 영상물 등 콘텐츠 제작. 제작한 콘텐츠를 기획재정부 블로그 및 개인 블로그에 게재. 무보수 명예직으로 단, 활동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 활동자에게 상품, 문화상품권, 홍보기념품 등 지급 예정

- 한국관광공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 “대한민국 트래블로거” (2008.9) : 국내관광 활성화와 블로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총 28명의 블로거에게 소정의 여행경비(35만원)를 지원하여 블로그를 통해 국내의 숨은 여행지를 소개하는 행사. 블로거를 통한 수준높은 콘텐츠 확보 및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이슈화한다는 취지로 기획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 “블로거! 네 꿈을 펼쳐라!” (2008.10) : 블로그 운영 기획안을 공모, 12팀을 선정하여 블로그당 50만원 ~ 200만원을 지급. ① 블로그 콘텐츠 활성화라는 기획의도에 적합한가? ② 기획안이 실현가능한가? ③ 독창적인 기획안인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심사

- 2)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일기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여 “무엇이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가에 대한 조사 없이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블로깅을 하며 저작권 침해, 법적 책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함
- 3) 블로거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함. 현재 블로그 산업협회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홍보 책자를 배포하고, 교육을 집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좋은 콘텐츠 생산과 토론 참가, 진행, 운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4) 블로그는 블로거 자신의 identity를 보여주는 미디어이므로 책임 있는 글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토론문화 정립과 활성화를 위해 유용한 통로가 될 것임. 이미 일부 블로그에서는 글쓰기 및 토론 규칙을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어 블로거들을 통한 온라인 공간의 자정력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고 있음<sup>17)</sup>

## 제 3 절 효율적인 토론공간을 위한 온라인 구조 개선

### 1. 온라인 구조(Architecture)의 개선

#### 가. Moderating

- 1) 실명이 확인된 경우 욕설, 비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 게시자의 정보 노출은 온라인 활동 위축 등의 반대급부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전면 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2) 사회적 정체성의 노출은 토론에 대한 개입을 감소시킴. 즉, 사회적 익명성(노출이 아니라)이 게시글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보다 많이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임
- 3) 중재자의 토론 개입은 토론의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중재의 간접적인 효과라는 것은 참여자들의 토론행동을 관찰하고 있는 중재자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유발하는 효과임. 토론자들이 중재자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토론자와 방관자를 의식하게 되고, 토론 공간에 보다 진지하게 임하는 행동을 하게 됨<sup>18)</sup>

#### 나. 토론의 준거틀 개선

- 1) 토론의 구조, 규칙을 바꿔주면 대화의 질이 좋아질 수 있음

---

17) 한영,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6차 회의,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토론의 특성과 활성화 방안”

18) 이준웅,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1차 회의 ; 이준웅 외, 2005,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한국언론학보, 49(1), p49~50

- 토론 및 대화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글 게시자의 연령, 성, 지역 정보 노출
- Moderator 존재여부
- 포인트 시스템

- 2) 사회적 정체성 노출, 중재자 개입, 토론 효능감 강화 등에 따라 인터넷 토론이 더 활발하게,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특정한 구조적, 규제적 조건들이 보다 많은 그리고 양질의 숙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3) 더 많은, 더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 조건이 실현되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이며 규제적 조건들이 적절히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결국 인터넷 토론 시스템에 내재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규범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함<sup>19)</sup>

#### 다. 개인 댓글방 개설 및 댓글 쓰기 방식 변경

- 1)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쓰면 자신의 댓글방으로 연결되는 방법이 있음. 자신의 댓글방에 쓰도록 하면 악플러들도 함부로 글을 쓰지 못할 것임. 왜냐하면, 동일인의 이전 댓글을 타인이 보다 쉽게 보고 보다 쉽게 평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2) 기사 댓글의 글자수 제한 규칙은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긴 하나, 흥미를 끌기 위한 짧고 자극적인 글쓰기를 유도할 수 있으며 토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논리적인

---

19) 이준웅,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1차 회의 ; 이준웅 외, 2005,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한국언론학보, 49(1), p52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며 의견만 던지게 하는 이러한 원칙은 생각 없는 글쓰기를 조장할 수 있음

- 3) 이러한 댓글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사고의 단문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접속자수가 포털의 수익과 크게 상관없다면 댓글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 4) 댓글 달기가 가능한 기사를 제한하고, 일정 수준의 지수를 확보한 사람만 댓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댓글 달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사업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 문화의 질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라. Link Incentive<sup>20)</sup>

- 자발적 편식을 막는 방법으로써 다양한 사이트 링크달기 고려 : 일반적으로 자신과 성격이 다른 사이트는 잘 보지 않고 또 링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주장을 하는 다양한 성격의 사이트에 링크를 건 사이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자발적 편식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마. 조정기제 구축

- 1) 거리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전에 진지한 성찰과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조정기제가 부족함. 정책 네트워크, 이슈 네트워크와 같이 정부와 시민을 연결해주는 조정기제가 제 역할을 못함.

---

20) 윤영철,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7차 회의, “인터넷과 합리적 소통”

- 2) 특정 연령층이 인터넷을 독점하여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오프라인에서의 전문가집단 의견을 온라인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필요. 이를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사하여 네트워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사례 5. BBC 토론 게시판 <Have your say>

- 개요
  - 토론이 필요한 기사에 '자기의견 쓰기'(Have Your Say) 기능이 있으며, 제자(moderator)에 의한 검토(check)와 승인(approval)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운영 방식
  - 비회원인 경우 : 논평이 웹에 바로 게재되는 것이 제한
  - 회원인 경우 : i) reactively moderated - 바로 게재  
 ii) fully moderated - 운영자 검토 뒤 게재
  - 이용자간 '추천'과 '불평신고' 기능 추가
  - 회원일수록 논평이 사이트에 게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고, 회원만 추천을 할 수 있게 하여 회원가입을 유인
  - 비방, 광고 등은 단체규칙(the House Rules)에 의해 엄격히 관리
- Moderation Mechanism
- 중재자(Moderator)가 개입하는 이유
  - 뉴스 기관으로서 다양한 청중에게 비판과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토론을 장려하며, Have Your Say 토픽들의 일부는 항상 편집자의 세심한 감독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재자가 개입하여 조정함

- 논의(discussion) 주제들의 조정(moderate) 방식
  - Full Moderation : Pre-moderation (뉴스 그룹 등에서 모아지는 메시지 중에서 의미 있는 것만을 고르는 일) 이라고도 함. Fully Moderated Discussion에 붙여진 모든 논평(comments)은 사이트에 게시되기 전에 BBC 운영자가 검사함
  - Reactive Moderation : Reactively Moderated Discussion인 경우, 회원이 보낸 논평은 사이트에 곧바로 게시됨. 하지만 비회원이라면 운영자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만 올릴 수 있음. 내용을 감독해서 단체규칙을 위반한 논평들은 삭제함

<그림 3-2> BBC 'Have your say'

The screenshot shows the BBC 'Have Your Say' forum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Home', 'News', 'Sport', 'Radio', 'TV', 'Weather', and 'Language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news article titled 'Should jobs go to local workers?' with a sub-headline: 'The prime minister has told those angry at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hat Wildcat strikes are "not defensible." Are you participating in any of the walkouts?'. Below the article, there's a 'DEBATE STATUS' box showing 4989 total comments, 415 rejected, and 137 in the moderation queue. A 'MOST POPULAR NOW' section lists related topics like 'Should jobs go to local workers?' and 'What do ex-presidents deserve?'. At the bottom, there's a prominent 'ADD YOUR COMMENT' button.

- 조정현황
  - 조정되는 코멘트 규모 : 일반적으로 하루에 보내지는 논평의 수는 3,000~6,000개이며, 특히 이슈가 되는 주제들의 경우에는 20,000개 정도일 때도 있음
  - 중재자(Moderator)의 업무 : 토론(debates)을 발행하고, 조정하는 중재자들로 구성된 팀이 있음. 사용자들이 관심 주제들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 팀이 토론을 업데이트함. 중재자들이 좋은 논평을 발견하면, 이것을 저널리스트 팀으로 보내고 그 논평을 올린 사람은 BBC 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기도 함
  - 중재자들은 주 7일 내내 24시간 메시지들을 검토함. 가능한 한 빨리 읽고 검토하려고 노력하지만, 바쁜 시간대나 인기 있는 논쟁의 경우 지체되기도 함
  - 토론 페이지 우측 상단에, fully / reactively moderated discussion / closed discussion인지 여부 표시. 그 아래에 총 논평 수, 게시된 논평 수, 거부된 논평 수, 검토를 위해 대기 중인 논평 수 표시
- Have your say 이용이 가능한 경우
  - 토론이 필요한 기사에 discussion이 열렸을 경우
    - discussion 주제 : 운영자들이 기사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거나, 이용자들이 관심 주제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운영자에게 보내면, 조정 매커니즘에 따라 게시됨
    - 가장 적합하고 최근의 토픽들만 토론 게시판에 열리고, 열린 토론도 논의 주제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제거되고 더 중요하거나 더 적합한 이야기로 대체되면 토론이 끝남
  - BBC Blog network

- 편집자들(editors), 통신원들이 자기 분야에 관해 BBC 내에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보고 논평을 올릴 수 있음. 다만, 여기서는 '추천' 기능은 없고, '불만 신고' 기능은 있음. 단체규칙(house rules)을 위반한 글들은 올린 시간, 글쓴이 닉네임은 화면에 보이되 규칙 위반으로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뜸
  
- Have Your Say에 논평을 남기는 방법
  - 토론 페이지의 'comment' 버튼을 누름. 회원인 경우는 연결된 다음 페이지의 박스 안에 논평을 쓰기만 하면 됨. 그 다음 미리보기 하거나 전송함. 미등록 사용자는 이름, 이메일, 거주지 등을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음
  - 논평의 길이에 제한은 보통 있으나 그 기준은 다양함. 만약 길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페이지 상단에 명시함
  - 비회원이 남긴 모든 글은 사이트에 게시되기 전에 Have Your Say의 운영자에 의해 검사됨. 들어온 논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송된 모든 논평이 사이트에 게재된다고 보장할 수 없음
  - 회원이라면, Reactively Moderated discussions의 경우, 논평이 사이트에 곧바로 게재됨. Fully Moderated discussions의 경우 논평은 Have Your Say의 운영자에 의해 검사됨
  
- 추천 방법
  - 비회원은 추천 할 수 없음. 회원인 경우 마음에 드는 논평을 발견했을 때 Recommend 버튼을 누름. 여러 논평들을 추천할 수는 있으나, 한 논평을 여러 번 추천할 수는 없음
  - 각 논평에 대한 추천들은 점수를 더해줌. 독자들은 추천수 순으로 논

평을 보기 위해서는 각 논쟁의 "Readers Recommended" 탭을 누르면 됨. 최다 추천 논평이 가장 상위에 위치함

## 2. 주요 인터넷포털의 구조 개선

### 가.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구조 개선이 필요

- 1)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네이버는 공공(public)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정보제공 역할을 해야 함. 민주주의 원칙에 볼 때 네이버를 공공 공간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2) 방문자수를 중시하는 수익모델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웹 2.0적인 사고로 관계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그 관계의 분석으로부터 수익모델을 찾아야 함

### 나. 주요 인터넷포털의 토론 방식

- 1)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에는 포털 운영진이 명시적으로 주제를 제안하는 경우와 블로그 게시글과 댓글로 자연스럽게 토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음. 네이버는 적극적으로 토론장을 운영하는 다음과 달리 이용자들의 의견 개진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토론 서비스를 제공
- 2) 네이버, 다음, SK컴즈 각 포털마다 지향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음. 다음은 이슈를 직접 선정하여 토론을 촉발시키고, 사회 공인들을 초청하여 네티즌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등 토론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3) 이러한 토론장 활성화에 대해 일부 네티즌이 주도하는 시각이 사회 전체 여론으로 호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이러한 우려 때문에 네이버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토론보다는 정보 유통과 검색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함

**네이버 "아고라 같은 토론방 계획 없어"<sup>21)</sup>**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토론장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NHN은 25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네이버도 아고라 만든다' 기사와 관련해 "네이버는 현재 다음 아고라와 같은 뉴스서비스 내 자유게시판형 토론장 서비스 개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NHN은 "네이버는 자연스러운 정보 유통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토론장) 기능과 양립할 수 없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NHN은 "다만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지식인·블로그·카페 등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한 토론 기능을 강화해 성숙된 네이버식 토론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4) 현재 포털의 온라인 토론에서는 사회자(중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토론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규칙도 실질적으로 없는 실정임. 이러한 토론 진행은 본래 주제에서 벗어나기 쉬우며 통제가 되지 않으므로 감정적 쏠림 현상이 나타남. 책임 있는 발언이 부족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5) 그러나 규제 강화는 토론의 활성화를 저해하기도 함. 규제와 토론을

21) 조선일보, 2008.6.26, "네이버 "아고라 같은 토론방 계획 없어"

어떻게 Matching할 것이냐는 각 포털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질 것임. 포털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지만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므로 책임의식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됨

### 3.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구축

#### 가. 정보격차 해소와 온라인 참여<sup>22)</sup>

- 1) 정보공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접근과 정보공개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인터넷 공론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임. 보편적 접근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공의제를 대화로 푸는 ‘공론의 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게 될 것임
- 2)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가계소득별 정보격차가 존재함.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화 활용능력의 부족으로 고령층의 참여가 제약을 받고 있음
- 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이를 활용하는 영역이 확대되는 고도정보사회에서는 정보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문화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4) 정보격차 해소는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실현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전자정부 등의 정보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이 없어야 함
- 5) 한편, 정보격차 해소는 오프라인으로의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줄임

---

22) 류현숙,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5차 회의, “공공성의 시각에서 바라 본 정보격차와 온라인 참여”

로써 형평성 제고에 더하여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임

## 나. 고령층 인터넷 이용과 토론 참여

- 1) 고령층 인터넷 사용 목적은 취미가 대부분이며 창업, 취업으로 연결되기도 함. 토론방 참여나 댓글 달기는 하지 않고 카페, 블로그만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 2) 인터넷을 젊은 세대가 주도함에 따라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문화 코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3) 인터넷 대화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경우 심리적 충격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화명 등이 젊은 세대의 코드에 안 맞으면 토론에서 소외될 수 있음
- 4) 고령층의 인터넷 사용 독려를 위해서는 고령층의 관심이슈로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젊은 세대의 인터넷 문화와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5) 인터넷 토론에 직접 참여하기 힘든 어른세대들의 의견을 온라인에 반영하기 위해서 고령층 패널을 구성, 지속적 의견조사를 해야 함
- 6) 온라인 토론에 -시간이 부족하여,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토론장에 적응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전문가, 식견을 가진 사람, 고령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문화, 프랑스<sup>23)</sup>

---

23) 전자신문, 2008.9.22, “[新인터넷-글로벌 웹2.0 현장] 프랑스 - 논쟁의 중심을 옮기다”

- 1) '전 세계 블로거의 1/3분이 프랑스인이라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프랑스에서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나 블로그는 인기가 있으며, 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함
- 2) 프랑스 인터넷 보급률은 58.1%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조한 반면, 10~20대가 인터넷 이용자의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40~50대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특히, 네티즌의 20%가 50대임.
- 3)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50대 이상인 고령화 사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인터넷 변화를 특정 연령대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고르게 받아들이는 안정적인 수용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토론에 익숙한 문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제 4 절 신뢰할 수 있는 토론공간을 위한 법·제도적 접근

### 1. 인터넷 토론문화 정화를 위한 법·제도

#### 가. 온라인 공간에 특화된 법·제도

- 1) 인터넷이 실제 세상(Real World)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오프라인과는 별개의 법리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실제 공간 Another Real World' 임<sup>24)</sup>
- 2) 규제를 통해 학습효과가 축적되면 일정 정도 인터넷 토론문화도 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터넷이 투영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규제 외에 다양한 시각에서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함
- 3)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과는 다른 가치와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온라인 공간에 특화된 법과 제도가 필요하여, 기존 법체계에 온라인 공간을 포섭하려 하면 온라인 공간만의 장점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 방향 모색 필요

#### 나. 온라인 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효과와 가능성

- 1) 법은 예측 가능성, 완벽성, 구체성이 있어야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

---

24) 황성기,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3차 회의,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포털 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2) 정책의 경우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효과가 10%라도 있으면 도입하는 것이 진일보한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임
- 3) 실제로 전화 발신자번호표시제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결과 악성 전화를 크게 감소시켰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음.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 역시 실시 이후 악성 댓글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임
- 4) 법적 차원에서 이른바 '최진실법'을 제정하여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악플러로부터 벌금을 받아내는 금전적 배상 강화가 효과적일 수 있음
- 5)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 제정이 댓글·토론글 정확에 궁극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법·제도의 강화는 올바른 사이버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해결방안이 필요
- 6) 법·제도의 시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결국 문화의 문제이긴 하나, 합리적인 법은 바람직한 문화 형성의 기본 틀을 제공할 수 있음

## 2. 인터넷 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

### 가. 현행 인터넷 규제시스템

- 1) 인터넷 규제를 위한 기본철학 부재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 부족으로 최소한의 규제만이 이루어졌으며 포털은 기업가 행태에

몰입해옴

- 2) 인터넷 규제시스템 설계에서 이해관계 주체인 국가(정부), 기업(시장), 이용자가 모두 참여해야 함. 한국의 인터넷 규제시스템은 설계과정에서 세 주체의 역할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3) 인쇄, 방송, 통신 등 매체 특성에 따라 규제 수준을 정해왔으나, 모든 미디어가 융합되는 이 시점에서 매체 간의 구별은 무의미해짐
- 4) 인터넷 규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일본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1~2년 검토 후 제안하고 있음
- 5)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는 현행법상에서 게시판을 운영하는 기업이 삭제하고 규제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6)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의 경우 이를 불법화하는 규제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신중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

## 나. 인터넷 포털의 규제 현황

- 1) 헌법재판소가 실시하였다시피,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임.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개입 내지 규제의 정당화 요건은 인쇄매체 혹은 방송매체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함. 다만 일정한 공익, 예컨대 소비자보호, 청소년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서 인터넷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정당화됨
- 2) '인지가능성'과 '기술적 기대가능성'을 기준으로 '정보매개자'로서의 포털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인지가능성 (알고 있었는가)
  - 기술적 기대가능성 (기술적으로 삭제 가능했는가)
-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우려해서임. 포털에게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것은 정보를 매개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
  - 4) 인터넷 규제에 대해 국가와 기업, 이용자 사이의 역할 분담이 필요. 국가와 기업, 이용자가 함께 어우러져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는 규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함

#### 다. 주요 인터넷 포털의 규제시스템 비교

- 1) 특정 댓글의 문제발생 시 해당 당사자는 포털 측에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댓글에 대해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함
  -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44조2의 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2) 현행 임시조치 시스템
  - 게시중단 요청 → 게시물 임시 게재 중단 (조치와 동시에 게시자에게 통보) → 명예훼손 여부 심의/확인 (방송통신위원회) → 확인되지 않을 경우 30일후 복원 (다음) / 재게시 요청시 복원, 요청이 없을 시 삭제 (네이버)

<그림 3-3> 네이버의 임시조치 절차<sup>25)</sup>



<그림 3-4> 다음의 임시조치 절차<sup>26)</sup>

침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침해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5) <http://inoti.naver.com/inoti/claim.nhn?m=process>, 2009.2.24

26) [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prog.html](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prog.html), 2009.2.24

3)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

- 네이버는 "30일이 지나더라도 당사자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계속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
- 다음은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정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

<표 3-1> 다음과 네이버 비교<sup>27)</sup>

다음	네이버
임시조치 기간 이후 즉각 블라인드 조치를 해제. “당사자간 조정기간에 해당되는 30일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관련 댓글을 복구한다”	임시조치 기간 이후에도 블라인드 처리 계속. “당사자간 어떤 조치도 없다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라. 현행 내용규제의 문제점

- 1) 현 시점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내용규제(심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는 것임
- 2)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 삭제 명령할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기관이 삭제 명령하기 어려움
- 3)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심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역시 정치적 민감 이슈 및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빠른 심의가 어려움.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사업자가 알

27) 아이뉴스24, 2008.7.31. “新 인터넷 규제”

아서 결정하기는 더욱 어려움

- 4) 이해관계 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거나 시기가 있는 사안일 경우 30일 임시조치 기간 동안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정보가 은폐될 수 있고, 30일 경과 후에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마. 현행 규제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 신속한 의사결정, 공공의 이익 추구, 공정성 확보

- 1) 불법 콘텐츠의 급속한 전파를 막기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2) 명백하게 법률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는 방향의 의사결정 가능해야 함. 국가가 이를 집행할 경우 검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율규제 모델이 바람직함
- 3) 의사결정의 수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야 하며 이 부분의 공정성에 대한 권위가 필요함(표현의 자유 vs 이용자 보호)
- 4) 내용규제 기구의 구성에서부터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네티즌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 바. 발전적 규제 시스템을 위한 인터넷기업의 역할

- 인터넷기업은 재원의 마련, 의사결정 내용의 이행 보장 등의 자율 규제 모델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에 주력하되,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을 위해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3. 인터넷 규제기관 신설 제안

#### 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대안적 분쟁 해결

: 화해, 조정, 중재

- 1) ADR은 비사법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로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 화해, 조정 등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임
- 2) 법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윤리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접근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함. 조정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도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3) 비법조인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은 보다 전문적인 판단 하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나.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한 제 3의 기구 신설<sup>28)</sup>

- 1) 모니터링 업무시 포털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사안들이 많음. 불법약품 광고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가 쉽지 않음
- 2) 인터넷기업협의회는 각 사업체의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나 신규영세사업자인 경우 모니터링 인력 고용이 힘들어 참여가 힘들어지므로 인터넷서비스사업에 진입장벽이 생길 것임
- 3)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시일이 너무 소요되어 효율성이 떨어짐.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이 사회적 민간 Sector에 의해 시행되

28) 이각범, 2008, 정보문화포럼 <온라인 토론문화 연구반>

어야 포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사업자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제 3의 기구가 필요함

- 4) 개별기업이 제 3의 기구를 운영하는 것보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기구는 정부,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자는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
- 5) 포럼은 공적기금으로 운영되며 인터넷 사업자는 일부 출연금을 지원함. 사업자 위주로 기금을 구성하면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회적 중간 영역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함
- 6) 자율규제를 위한 정책과 기관 설립 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나 해외 인터넷 규제 정책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국의 특별한 인터넷 환경(누구나 접속 가능하여 수많은 UCC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의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많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다. 해외 인터넷 규제 기구 사례

##### 사례 6. 프랑스 <FDI; Forum des droits sur l'internet>

- 성격
  - 자율규제와 공공규제가 공존하는 공동규제(Co-regulation)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유럽에서 유일한 기구임
- 역할
  -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의견 주도 : 이용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사이

에서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의견 교환 및 준거틀 설정

- 정보제공 :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정보제공 및 교육기능을 수행하며, 인터넷 이용이나 규칙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수집. 포럼 웹사이트 ([www.foruminternet.org](http://www.foruminternet.org))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답변과 실무적 도움 제공
  - 중재자로서의 기능 : 공공기관과 민간업계 사이의 중재자 역할 수행. 포럼이 조직한 연구 집단의 토의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조치를 원하는 민간 업계나 공공기관에게 권고안을 제공하고, 기존 법규를 개정하도록 제안함. 이러한 활동은 포럼이 주도하기도, 정부조직의 요구에 대응하여 행해지기도 함
  - 국제협력 추구 : 누구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토론장 제공
- 구성
- 현재 회원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등의 인터넷 관련업계, 광고주연합(UDA), 온라인서비스상거래협회, 정보/자료 전문가 협회, 텔레콤/정보 권리협회 등 관련협회, 프랑스 영상연구소(INA), 광고검증국(BVP) 등 관련 공공기관, 유럽위원회 위원, 행정관료 등으로 구성되어 60여개가 넘는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포럼 가입회원 : 민간법인과 공공법인으로 구성, 이들 법인은 다시 전문가와 사용자 두 집단으로 분류
  - 포럼 설립회원 : 전문가와 사용자를 대변하는 법인의 대표자들이 설립 회원으로서 포럼의 두 주요 기관인 집행위원회와 관리위원회를 구성
  - 통신회원 : 인터넷 및 인터넷 법규 이슈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국제기구들로 구성

- 조직
  - 집행위원회
    - 전문가 : 업계 대표 : 이용자 대표 = 1:1:1 의 비율로 구성
    - 인터넷과 관련된 법률·경제·기술·사회·정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결정이나 권고안 작성 시에 공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위원 임기는 3년이며, 매년 1/3씩 바뀜
  - 관리위원회
    - 협회의 도덕성과 재무의 건전성을 보증. 포럼의 목적을 감독하고 협회 예산상의 의무 이행이 준수되도록 함
  - 연구그룹
    - 집행위원회에서 다룰 안전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는 포럼 내부 그룹. 협회의 자원자이거나 초빙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특정사안을 조사·연구한 뒤에 그 결과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 자문위원회
    - 집행위와 관리위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 공공부문과의 관계
  - 국가·행정부와 밀접한 관계
    - 국가는 포럼 회원은 아니지만, 포럼은 국가의 대표자들이 포럼에 참여하도록 요구함. 포럼은 자율적 기구지만 그 결정이나 권고가 중립성을 확보하고, 협회의 제안이 공공기구에 의해 고려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 유지가 필요함
    - 포럼과 행정부의 관계 유지 위해 집행위원회에 참관인 observer 자리를 마련함. 참관인은 결정권은 없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행정부 대표들은 포럼에 설치되는 연구 집단에도 참여

- 독립행정기구와의 긴밀한 관계
  - 프랑스 방송위원회(CSA), 정보통신규제청, 국가정보자유위원회, 경쟁위원회 등의 관련 독립행정기구는 포럼에 파견 연구원을 두고 있음. 이들은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청받으며, 연구 집단에도 참여함
-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
  - 특정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됨

## 사례 7. 영국 <Childnet International>

- 개요
  - Childnet International은 인터넷에는 세 가지 위험 요소(3C) - 콘텐츠(Content), 접촉(Contact), 상업주의(Commerce) - 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비영리 조직으로 발족한 인터넷 감시 단체
- 정보 이용자에게 대한 홍보·교육
  - 정보 이용자에 대한 워크숍 개최 및 안내책자 무료 배포 등의 홍보·교육이 가장 중요한 업무
-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망을 위한 연합 단체 INHOPE 설립
  -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망 구축을 목표로 유럽인터넷감시망제공자협회(Internet Hotline Providers in Europe Association; INHOPE)를 창립
  - INHOPE의 목표는 효율적인 국제적 핫라인을 설립하고, 인터넷 안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임. INHOPE 연합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인터넷 불건전 정보 단속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함

- 'Chat Danger' 운영

- 유럽 청소년들의 채팅을 통한 직·간접적인 만남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Childnet International은 'Chat Danger'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올바른 채팅 방법에 대해 교육함. 청소년들의 채팅 활동에 대해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육함. 채팅방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대해 평가 기준을 정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채팅방을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함

- 유익하고, 건전한 청소년 사이트 선정

-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Childnet Award"라는 상을 수여하고 있음. 사이트가 얼마나 참신한지, 유용한지, 국제적인지, 흥미와 현실성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사이트 추천

- Childnet International은 'Launchsite'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흥미 있으며, 안전한 사이트들을 추천하고 있음. 영어, 불어, 독어, 이태리어로 되어 있어 유럽의 모든 청소년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임. 동아리 활동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펜팔, 안전한 환경에서 채팅,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음
- 또한 교사들이 교육을 하거나 학생들을 상담할 때 유용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안내함

- 인터넷과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조사·연구 활동
  - Childnet International은 인터넷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이나 실태에 대해서 조사·연구하는 'Netaware'도 운영. 특히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인터넷의 장점을 부각시킴. 영어, 불어 등 4가지 언어로 되어 있으며, 유럽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관련 문제들이나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 인터넷 안전에 대한 유럽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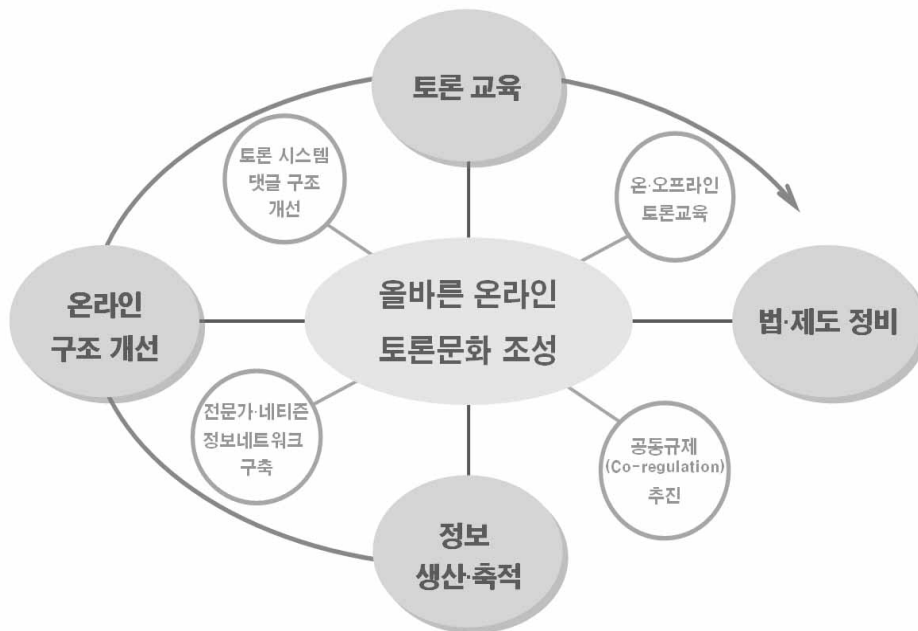
## 사례 8. 일본 인터넷사업자단체 <IAJAPAN>

- 모바일 콘텐츠 자율 규제
  - 인터넷사업자단체(IAJAPAN)는 200여 개의 일본 인터넷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산업협회. 2001년 '인터넷에 미래사회 건설'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활동을 개시함
  - 웹사이트(<http://www.iajapan.org>)에 인터넷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참여함
  - IAJAPAN은 '세이프온라인2'라는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도 운영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노출, 섹스,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주별로 각 5단계 등급을 나누고 있음. 향후 개인정보, 자살, 저작권 침해, 인종차별, 쇼핑과 경매, 스트리밍·영화, 온라인게임 등에 대해서도 추가할 것을 검토 중임

## 제 4 장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 한국 인터넷 문화의 장기적 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인터넷 공간과 네티즌이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임. 인터넷 공간에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인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이슈 대응적인 규제보다는 장기적·지속적·다각적 정책 마련이 요구됨

<그림 4-1>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 제 1 절 온·오프라인 토론 교육 강화

### 가. 장기적·지속적인 오프라인 토론 교육 추진

- 1) 성숙한 온라인 토론 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토론 문화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함. 일상생활에서부터 올바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과정에서 토론 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함
- 2) 교육계 인사, 토론 및 논술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토론 문화 조성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토론 교육 방법과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논의체 구성이 필요함
- 3) 토론 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토론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야 함

### 나. 온라인 토론 전문 사이트 개설 및 운영

- 1) 온라인 토론 교육을 담당하고 모범적인 토론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는 전문사이트를 개설하여, 바람직한 토론 방법과 규칙 및 최상의 토론 자료를 제공하여,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균형 잡힌 이해를 가능하게 함
- 2) 온라인 토론 사이트 개설시 주요 고려 사항
  - 토론 주제와 범위, 방법과 규칙을 정확하게 제시
  - 토론을 위한 기본 자료 및 근거 제공
  -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제재의 적절한 조화
  - 관리자(Administrator), 주요 전문가(Leading Experts), 토론 전문가

(Debate Experts), 중재자(Moderator), 토론 회원으로 구성. 각 분야 관련 주요 전문가로 토론 주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토론 전문가는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

## 제 2 절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 가. 전문성, 신뢰성 확보한 정보 생산 및 축적

- 온라인 공간에서 양질의 정보를 생산·축적하고, 전문가의 좋은 글이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네티즌들에게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 정보를 제공함

### 나. 전문가, 네티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 1) 정책 네트워크, 이슈 네트워크와 같이 정부, 전문가, 네티즌을 연결해주는 조정기제를 마련하여 진지한 성찰과 토론을 유도함
- 2) 정보 생산의 기본적 단위가 되는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블로거를 대상으로 올바른 온라인 토론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블로그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연한 시각으로, 객관성, 신뢰성을 갖춘 기준을 통해 지원해야 함

## 제 3 절 공동규제(Co-regulation) 프로젝트 추진

### 가. 공공규제와 자율규제가 결합된 공동규제 기구 신설

- 1) 공공규제와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공동규제(co-regulation)를 추진함. 규제시스템 설계에서 이해관계 주체인 국가(정부), 기업(시장), 이용자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기구의 구성에서부터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2) 공동규제 기구 구성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또한 법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접근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함
- 3) 주요 역할은 인터넷 이용 현황에 대한 의견 등을 수집,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며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위한 준거 틀을 설정함.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정보제공 및 교육을 수행하며,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업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권고안을 제공하고, 기존 법규 개정에도 대해서도 제안함



## '08 정보문화 심층 연구과제

구분	과제명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① (연구보고 08-13)	정보문화 이론모형에 관한 연구 - 한국 정보문화 현황 진단을 위한 예비적 고찰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② (연구보고 08-14)	디지털 위험사회 대응 정책방안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③ (연구보고 08-15)	한국 온라인 문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방안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④ (연구보고 08-16)	온라인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웹정보 신뢰성 평가척도 모델 개발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⑤ (연구보고 08-17)	정보문화 거버넌스 구축방안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⑥ (연구보고 08-18)	사이버공동체 활성화 전략 - 정책참여형 사이버공동체를 중심으로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⑦ (연구보고 08-19)	정보문화 국제 비교 연구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⑧ (연구보고 08-20)	정보의 공유 및 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⑨ (연구보고 08-21)	집단지성의 신뢰성 제고방안 - 위키피디어 사례를 중심으로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⑩ (연구보고 08-22)	온라인 신뢰판단을 위한 평판제도(Reputation System) 연구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⑪ (연구보고 08-23)	인터넷정보의 유통 및 확산경로 탐색연구 -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08 정보문화 심층연구 ⑫ (연구보고 08-24)	정보편식과 생산적 정보활용 교육방안



---

## 한국 온라인 문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온라인 토론문화 조성방안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57-7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로 188

발행일 : 2009. 2

발행인 : 손연기

발행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전화 : 3660-2622                      FAX : 3660-2629

URL : <http://www.kado.or.kr>

---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 보고서의 전문이 제공됩니다.

